



2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대림건설 현장사무소에서 개최한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 상인이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석로 폐쇄 이어 냉각탑 붕괴사고까지 옆친데 덮쳐

# 금남지하상가 상인들 피해 눈덩이

단전·단수에 영업불가 "관리비 조차 내기 버겁다"

"전기도 물도 안 나오는데 장사를 어떻게 할겁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지난해 말 점포를 내놓은 K동 김모씨는 "관리비도 아깝고 문화전당이 들어서면 좋을 것이라 기대감에 버티었는데 관리비 내는 것도 버겁고 빚만 늘어서 작년 말에 가게를 내놨다"며 "6개월이 넘도록 임대 문의를 해오는 전화조차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F동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오운자씨는 "가게에 물이 줄줄 새는 것을 퍼내면서 영업을 해왔었다"며 "물도

전기도 안 나오고 붕괴사고까지 겹쳤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여기를 찾아오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남로 1~3가 지하에 입점해 있는 점포는 모두 300여곳. 특히 문화전당 공사현장 밑에 위치해 있는 J-K 구역은 비탈면 F구역 등 금남지하상가 2공구 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크다. 이

번 붕괴사고로 점포 3곳이 무너졌고 20일엔 2공구 전체 점포와 1공구 E구역 20여개 업체가 휴점에 들어갔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공구 내에는 170여개에 이르는 점포가 입점해 있었지만 문화전당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부터 문을 연 가게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남지하상가 2공구 상인들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가 천정이 내려앉고 진열장 문짝도 아귀가 틀어지는 등 곳곳에서 붕괴 위험을 느껴왔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영업을 해왔었다"며 "발파작업 등 공사소음을 비롯해 공사장 먼지가 뿌연게 차기도 해 영업 손실은 두고라도 공사 휴업으로 인한 고통도 이부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동인구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고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돼 월 25만~30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게도 30여곳이나 됐다.

현재 상인들은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발생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간접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순성 금남지하상가 2공구 변영회장은 "사고로 단전·단수까지 돼 영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안전 진단과 보상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EU재정·대북 리스크 겁악재 환율 29원↑ 코스피 29P↓

유럽연합(EU) 재정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증시가 급락했다. 여기에 천안함 관련 대북(對北) 리스크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30원 이상 폭등했고, 이는 천안함 관련 재료에도 부담당한 흐름을 유지하던 코스피지수를 1,600선으로 끌어내렸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29.90포인트(1.83%) 내린 1,600.18원에 마감했다. 장중 1,591선까지 빠졌다.

외국인은 3880억원어치를 순매도하고 개인이 188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날 오전 민간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북한의 어뢰 공격을 지목했지만 증시는 1,630선 부근에서 등락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시장이 출렁이면서 금융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됐다. 원·달러 환율은 오전 중 10원가량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오후 들어 30원 안팎으로 상승폭을 높이면서 29원 오른 1,194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급등하자 외국인들이 주식 순매도세를 강화했



고 이는 코스피지수의 낙폭을 키웠다. 아시아권 증시도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54% 대만 가권지수는 1.78% 급락했다.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토러스증권 공동락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천안함 관련 뉴스가 노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다만 앞으로 한·미의 대응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서민 금융기관 수신 증가

광주·전남 3월 여수신동향

은행권 수신금리가 툭 떨어지면서 광주·전남 예금은행의 수신 증가폭이 줄고 비은행기관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3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수신(+4318억원)은 전달(+6753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

비은행기관의 수신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전달(+3214억원)보다 증가폭(+

4552억원)이 확대됐다.

이는 은행권의 정기적금 비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3.41%로 떨어진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연 5.16%로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농철 자금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은행기관의 여신은 전달(+51억원)보다 증가폭(+2854억원)이 크게 확대됐다.

또 신용협동조합(+478억원→+681억원), 새마을금고(+127억원→1349억원)도 소액신용대출이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건강보조식품 미끼 불법자금 모집 주의보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41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13건이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일례로 서울에 있는 M사는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18년간 1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It features a cartoon of a knight on a horse and several photos of hearing aid devices. Text include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and contact numbers for various branches: 본점 (062)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82-9200, 익산점 (063) 851-2422.

Advertisement for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망수시스템' (IPALG Triple Shear Thermal Composite Sheet Water Management System). It shows a person in a white protective suit and a diagram of the system. Text includes: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망수시스템', '단열 망수층', and contact numbers: 511-0444, 010-6603-0405.

Advertisement for '星谷傳統文化研究會' (Seongok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Association). It features a yellow background with black and red text. Text includes: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름을 바꾸세요.', '신생여 직명명기', and contact numbers: 062) 227-2356, 010-7671-5623.